

부활 제2주일 복음 나누기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 20,19-31)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새로 온 사람 소개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 요한 20,19-31
-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써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잠시 묵상 후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 의심은 인간의 것이고 평화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셔야만 평화는 가능해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 ❖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하고 예수님께 고백한 체험이 있습니까?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어느 날 부자 한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대형 유람선을 타고 유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승객이 많아 그는 누군가와 함께 방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게 된 사람이 도둑 같아 보이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귀중품을 챙겨 들고 아래 선실로 내려가서 그 배의 사무장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좀 맡기고 싶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함께 방을 쓰는 사람이 영 믿음직스럽지가 않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맡아드리지요. 그분도 벌써 맡기고 갔는걸요.” “그런 사람들을 한 방에 묶어 놓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신이 깊을수록 불행도 깊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은 끊임없이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해 별의별 트집을 잡아 다투는가 하면 정도가 심하면 외출도 못 하게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자꾸 따지고 들면 의심이 커지고, 반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토마스 사도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신이 확신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6. 안건토의와 공지사향 전달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